

유아의 주의집중력과 놀이성의 관계

강영식*, 김지숙**,
***충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유아교육과
e-mail: chococandy16@naver.com

The relationship between children's attention and playfulness

Young-Sik Kang*, Ji-suk Kim**
***Dept.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본 연구의 목적은 유아의 주의집중력과 놀이성의 관계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D시에 위치한 유아교육 기관의 만 3세부터 만 5세 유아를 담당하고 있는 교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97명을 최종 연구대상자로 선정하였다. 연구도구는 SPSS 26.0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신뢰도분석, 기술통계, t검증, ANOVA, 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유아의 성별과 연령에 따라 주의집중력과 놀이성은 차이가 없었다. 둘째, 놀이성과 주의집중력 간 정적상관관계를 나타내며 유아의 주의집중력이 높을수록 유아의 놀이성이 증가됨을 예측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결과는 구조화된 놀이 활동이 유아의 주의집중력 향상에 기여할 수 있으므로 이를 교육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에 대해 시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Key Words : 유아, 놀이중심, 주의집중력, 놀이성, 인지발달

1. 서론

유아에게 놀이는 삶의 시작이자 전부이다. 놀이는 유아기 성장과 발달에 전반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유아 놀이는 사회, 인지, 정서발달은 물론 자발적 호기심과 탐색적 사고를 통해 내적동기화에 의한 주의집중으로 연계되어 학습과 연계된다. 놀이를 통해 유아는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세상을 경험하고 배워간다.

스마트폰과 태블릿의 과도한 사용으로 인해 놀이 시간이 줄어들고, 조기교육 열풍으로 인한 학습 중심의 사회 분위기는 유아들의 자유로운 놀이 시간을 감소시키고, 유아들을 구조화된 조기 학습에 노출 시켜 유아기의 놀이 부재 현상을 심화시키고 있다. 정부가 유아 주도의 놀이를 통한 학습을 구현하고자 유아·놀이 중심 교육과정으로 개정을 추진하며 놀이의 중요성이 재조명되고 있다. 그동안의 연구들에서 놀이는 유아들이 각각 개인차에 의한 놀이로 유아가 보이는 놀이에 대한 성향이나 행동 놀이의 기질 등을 파악하고 있다. 유아들의 놀이성에 나타나는 유아의 내적 성격 특성이나 외적 행동 표현은 놀이에 대한 내적·외적 동기와 자발성, 참여 동기 등은 놀이성에 대한 유아들의 놀이 성향이며 외현적·내

현적 행동이나 즐거움 등을 통해 전반적 발달을 촉진한다. 유아기 놀이 경험은 유아의 전인 발달에 큰 영향을 미치고, 놀이는 즐거움을 추구하는 자발적인 활동이며, 호기심에 의한 내적 동기로 인하여 주의 집중하는 재미있고 신나는 활동이다.

Lieberman(1965)은 놀이성의 구성요소로 신체적 자발성, 사회적 자발성, 인지적 자발성, 즐거움의 표현, 유머 감각을 제시했다. 이 요소들은 유아의 전반적인 발달과 학습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며, 유아는 놀이하는 동안 활동에 주의를 기울이며 사물에 집중하고 놀이에 몰입하는 행동을 관찰할 수 있다. 특히 인지적 자발성이 높은 유아는 놀이 과정에서 사물을 직접 탐색하고 경험하며 주의를 집중하여 지식을 습득한다. 이는 단순히 즐거움을 추구하는 것을 넘어서, 형성된 사전 지식을 활용하거나 문제해결 능력의 수단으로 사용하게 된다(김미숙, 2001).

주의집중력은 인지 발달의 핵심 요소이며, 유아의 주의집중력은 다양한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Ruff와 Rothbart(1996)는 유아의 주의집중력이 연령에 따라 발달하며, 특히 3~5세 사이에 급격히 향상된다고 밝히고 있다. Lawson과 Ruff(2004)는 유아의 주의집중력에 큰 개인차가

있으며, 이는 후기 인지발달과 학업 성취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했다. 또한, Berk(2013)는 구조화된 놀이 활동이 유아의 주의집중력 향상에 도움이 된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연구들을 종합해 볼 때, 유아의 주의집중력은 발달적, 개인적 요인들의 복합적인 상호작용 결과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놀이의 과정에서 발견되는 놀이성과 주의집중력이 어떤 관계성이 있는지에 대해 이해하는 것은 유아중심·놀이중심 교육에 중요한 방향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유아를 대상으로 유아의 놀이성과 주의집중력의 관계를 알아봄으로써, 유아중심·놀이중심 교육과정에서 추구하는 유아놀이성과 주의집중력에 대한 기초적 자료를 제공하고자 다음과 같은 연구 문제를 설정하였다.

첫째, 유아의 성별과 연령에 따른 놀이성과 주의집중력은 어떠한가?

둘째, 유아의 놀이성과 주의집중력의 관계는 어떠한가?

2. 연구방법

2.1 연구대상

본 연구는 D시에 위치한 유아교육기관의 만 3세부터 만 5세 유아를 담당하고 있는 유아교사 97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각 교사는 담당 학급의 유아들에 대해 개별적으로 설문에 응답하였으며, 한 명의 교사가 여러 유아에 대해 각각 별도의 설문을 작성하였다.

회부된 100부의 설문자료 중 불성실한 설문을 제외하고 97명의 설문자료를 최종 분석에 사용하였으며, 연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표1]과 같다.

[표 1] 연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N=97

변 인		n	%
유아 성별	여자	56	57.7
	남자	41	42.3
유아 연령	만 3세	52	53.6
	만 4세	9	9.3
	만 5세	36	37.1
기관 유형	국공립 유치원	12	12.4
	사립 유치원	40	41.2
	직장, 법인 어린이집	45	46.4

2.2 연구도구

2.2.1 주의집중력

유아의 주의집중력을 측정하기 위해 홍성훈(2013)이 개발한 교사용 유아 주의집중력 측정도구를 사용하였다. 하위요

인 중 ‘충동성’의 경우 주의집중력과 상반되는 부정적 의미로 해석되므로, 손희진(2015)이 수정·보완한 도구를 참고하여 하위요인 ‘충동성’을 ‘안정성’으로 바꾸어 수정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총 20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유아의 주의집중력 전체 Cronbach’s α 계수는 .93이었고, 하위요인 중 ‘집중력’은 .88, ‘적응성’은 .82, ‘안정성’은 .83, ‘감성’은 .78이다.

2.2.2 놀이성

유아의 놀이성을 측정하기 위해 Barnett(1990)이 제작한 유아의 놀이성 척도(Children’s Playfulness Scale; CPS)를 유애열(1994)이 번안한 측정도구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총 23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유아의 놀이성 전체 Cronbach’s α 계수는 .92이었고, 하위요인 중 ‘신체적 자발성’은 .85, ‘사회적 자발성’은 .76, ‘인지적 자발성’은 .85, ‘즐거움의 표현’은 .77, ‘유머감각’은 .68이다.

2.3 자료수집 및 분석

회수된 자료는 SPSS 26.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신뢰도 분석, 기술통계, t검증, ANOVA, 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하였다.

3. 연구결과

3.1 유아의 주의집중력

유아의 성별에 따른 주의집중력에 차이가 있는지 분석한 결과는 [표 2]와 같다. 주의집중력의 하위요인인 ‘적응성’의 평균은 여아가 4.18($SD=0.85$), 남아는 3.80($SD=0.82$)로 나타나 여아의 평균이 남아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t=2.18, p<.05$). 주의집중력의 하위요인인 ‘집중력, 안정성, 감성’ 등은 남녀 간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표 2] 유아 성별에 따른 주의집중력의 차이

M(SD), N=97

	여아 ($n=56$)	남아 ($n=41$)	t(p)
집중력	3.83 (0.87)	3.57 (0.98)	1.40 (.166)
적응성	4.18 (0.85)	3.80 (0.82)	2.18* (.032)
안정성	3.90 (0.94)	3.71 (1.08)	0.90 (.371)
감성	3.86 (0.97)	4.00 (0.77)	-0.79 (.431)
전체	3.92 (0.77)	3.75 (0.77)	1.07 (0.29)

* $p<.05$

유아의 연령에 따른 주의집중력 간의 차이가 있는지 분석한 결과는 [표 3]과 같다.

각 요인의 평균을 연령별로 살펴보면 모든 변인에서 만 5

세의 평균이 가장 높았다. 하지만 그 차이는 유의도 .05 수준에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어 연령에 따른 주의집중력의 차이는 없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표 3] 유아 연령에 따른 주의집중력의 차이 N=97

		<i>n</i>	<i>M</i>	<i>SD</i>	<i>F</i>	<i>p</i>	<i>Scheffé</i>
집중력	만 3세	52	3.57	0.89	3.10	.050	-
	만 4세	9	3.41	1.17			
	만 5세	36	4.01	0.85			
적응성	만 3세	52	3.90	0.80	2.02	.138	-
	만 4세	9	3.83	1.19			
	만 5세	36	4.24	0.80			
안정성	만 3세	52	3.68	1.12	1.08	.344	-
	만 4세	9	3.97	0.91			
	만 5세	36	3.98	0.83			
감성	만 3세	52	3.77	0.95	2.26	.110	-
	만 4세	9	3.82	0.99			
	만 5세	36	4.17	0.72			
전체		97	3.85	0.77	2.89	.060	

**p*<.05

3.2 유아의 놀이성

유아의 성별에 따른 놀이성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는 [표 4]와 같다. [표 4]에 제시된 바와 같이 유아의 성별에 따른 놀이성의 유형 중 ‘즐거움의 표현’의 평균이 여아 4.38 (*SD*=0.65), 남아 4.12(*SD*=0.56)로 모두 가장 높게 나타났고, 여아의 평균이 남아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t*=2.03, *p*<.05). 이외 놀이성의 하위요인인 ‘신체적 자발성, 사회적 자발성, 인지적 자발성, 유머감각’ 등은 남녀 간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표 4] 유아 성별에 따른 놀이성의 차이 *M*(*SD*), *N*=97

	여아 (<i>n</i> =56)	남아 (<i>n</i> =41)	<i>t</i> (<i>p</i>)
신체적 자발성	3.86 (0.97)	3.80 (0.86)	0.31 (.759)
사회적 자발성	3.64 (0.86)	3.31 (0.77)	1.96 (.052)
인지적 자발성	3.70 (0.92)	3.32 (0.94)	1.98 (.050)
즐거움의 표현	4.38 (0.65)	4.12 (0.56)	2.03* (.045)
유머 감각	3.87 (0.72)	3.71 (0.72)	1.08 (.283)
전체	3.90 (0.65)	3.66 (0.60)	1.84 (.069)

**p*<.05

유아의 연령에 따른 놀이성의 차이를 살펴보면 [표 5]와 같다. 놀이성의 하위영역별로 살펴보면 ‘신체적 자발성, 사회적 자발성, 즐거움의 표현, 유머감각’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보이지 않았으나, ‘인지적 자발성’은 만 5세 유아보다 만 4세 유아보다 높게 나타났고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F*=3.64, *p*<.05).

[표 5] 유아 연령에 따른 놀이성의 차이

N=97

		<i>n</i>	<i>M</i>	<i>SD</i>	<i>F</i>	<i>p</i>	<i>Scheffé</i>
신체적 자발성	만 3세	52	3.96	0.94	2.43	.094	-
	만 4세	9	3.25	1.45			
	만 5세	36	3.79	0.66			
사회적 자발성	만 3세	52	3.38	0.82	2.05	.135	-
	만 4세	9	3.33	0.87			
	만 5세	36	3.72	0.81			
인지적 자발성	만 3세	52	3.52	0.81	3.64*	.030	만 4세<만 5세
	만 4세	9	2.83	1.17			
	만 5세	36	3.75	0.99			
즐거움의 표현	만 3세	52	4.26	0.64	0.39	.681	-
	만 4세	9	4.44	0.42			
	만 5세	36	4.24	0.65			
유머 감각	만 3세	52	3.71	0.66	1.04	.359	-
	만 4세	9	3.87	0.67			
	만 5세	36	3.93	0.80			
전체		97	3.80	0.64	0.98	.380	

**p*<.05

3.3 유아의 주의집중력과 놀이성 간의 관계

유아의 주의집중력과 놀이성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는 [표 6]에 제시된 바와 같다. 먼저 주의집중력과 놀이성을 살펴보면 (*r*=.59, *p*<.001)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적상관관계를 보였다. 하위요인별로 살펴보면 유아의 주의집중력의 ‘집중력, 적응성, 안정성, 감성’은 유아의 놀이성의 ‘신체적 자발성, 사회적 자발성, 인지적 자발성, 즐거움의 표현, 유머 감각’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적상관관계를 보였다. (*r*=.25 ~ .68, *p*<.05) 그중 유아의 주의집중력의 ‘안정성’은 유아의 놀이성의 ‘신체적 자발성, 인지적 자발성, 즐거움의 표현, 유머 감각’과 유아의 주의집중력의 ‘감성’은 유아의 놀이성의 ‘신체적 자발성’과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표 6] 유아 주의집중력과 놀이성의 관계

N=97

	집중력	적응성	안정성	감성	주의집중력
신체적 자발성	.35*** (.000)	.40*** (.000)	-.14 (.168)	.19 (.070)	.25* (.013)
사회적 자발성	.62*** (.000)	.76*** (.000)	.28** (.005)	.63*** (.000)	.68*** (.000)
인지적 자발성	.52*** (.000)	.62*** (.000)	.15 (.146)	.52*** (.000)	.54*** (.000)
즐거움의 표현	.40*** (.000)	.51*** (.000)	.01 (.917)	.29*** (.004)	.37*** (.000)
유머 감각	.44*** (.000)	.61*** (.000)	.05 (.626)	.46*** (.000)	.46*** (.000)
놀이성	.59*** (.000)	.73*** (.000)	.10 (.339)	.53*** (.000)	.59*** (.000)

p*<.05, *p*<.01, ****p*<.001

4.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유아의 놀이성과 주의집중력의 관계 및 성별과 연령에 따른 일반적 경향에 대해 살펴봄으로써, 유아교육의 기초적 자료를 제공하는데 목적으로 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얻은 결과를 토대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유아의 성별에 따른 주의집중력과 놀이성을 살펴본 결과, 주의집중력의 '적응성'과 놀이성의 '즐거움의 표현'에서 여아의 평균이 남아의 평균보다 조금 더 높은 점수를 보였고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냈으나, 그 외 주의집중력과 놀이성의 모든 하위요인에서 통계적인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는 유아들의 전체적인 주의집중력과 놀이 수준은 성별에 따라 차이가 없는 것을 나타내며, 이와 같은 결과는 유아의 성별에 따라 놀이성의 차이가 없다는 결과를 보여준 한효정(2024)의 결과와 맥락을 같이한다.

놀이는 즐거움을 추구하는 자발적인 활동이며, 호기심에 의한 내적 동기로 인하여 주의 집중하는 재미있고 신나는 활동이기 때문에 성별에 따른 주의집중력과 놀이성에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둘째, 유아의 연령에 따른 주의집중력과 놀이성을 살펴본 결과 놀이성의 하위요인인 '인지적 자발성'에서 만 5세 유아가 만 4세 유아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난 것 외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Ruff와 Rothbart(1996)의 연구에서 주장한 유아의 주의집중력이 연령에 따라 발달한다는 결론과 상반된다. 또한, 연령 증가가 단순히 놀이성 증가로 이어지지 않으며, 다양한 내적 및 외적 요인들을 고려해야 한다는 이민국(2011)의 연구 결과와 부분적으로 일치하나, 연령에 따라 놀이성의 차이가 있다고 밝힌 고소영(2003)의 연구 결과와는 다르게 나타났다.

이는 유아의 놀이성과 주의집중력은 개인적 요인들의 복합적인 상호작용의 결과로 개인차가 크기 때문에 단순히 연령의 증가가 주의집중력과 놀이성의 증가로 설명하기는 어렵다. 또한, 최근 스마트폰과 태블릿 사용의 증가, 조기교육 열풍 등의 사회적 변화가 유아들의 자유로운 놀이 시간을 감소시키는 등의 환경적 요인들로 연령에 따른 자연스러운 발달을 방해해 이러한 결과가 나타났을 수도 있겠다.

셋째, 유아의 놀이성과 주의집중력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놀이성과 주의집중력 간에 유의미한 정적 상관이 나타났다. 즉, 유아의 주의집중력이 높을수록 유아의 놀이성이 증가됨을 예측할 수 있으며, 이는 구조화된 놀이 활동이 유아의 주의집중력 향상에 도움이 된다고 주장한 Berk(2013)

의 결과와 맥락을 같이한다.

인지적 자발성이 높은 유아는 놀이 과정에서 더 집중력 있게 참여할 가능성이 높은 것을 예측할 수 있듯 놀이성의 요소들(신체적 자발성, 사회적 자발성, 인지적 자발성, 즐거움의 표현, 유머 감각)은 주의집중력의 요소들(집중력, 적응성, 안정성, 감성)과 상호 보완적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본 연구 결과, 유아의 성별이나 연령 증가가 놀이성과 주의집중력 향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나, 놀이성과 주의집중력 간에 상호 보완적 관계가 있음을 밝혔다. 이는 구조화된 놀이 활동이 유아의 주의집중력 향상에 기여할 수 있으므로, 이를 교육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더불어, 이 연구 결과는 놀이 중심 유아교육의 실효성을 뒷받침하는 기초적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결론을 바탕으로 제한점과 후속 연구를 위한 방향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대상이 D시의 유아를 대상으로 실시하였기 때문에 연구결과를 일반화 시키는데 한계가 있다. 그러므로 연구대상을 전국으로 확대하여 후속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유아의 주의집중력과 놀이성 측정 척도를 담임교사가 관찰하여 측정하도록 하였기 때문에 교사의 주관적 판단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므로 전문가 측정이나 연구자의 현장 관찰, 녹화 등의 방법을 활용해 자료를 수집함으로써 오류를 최소화하고 좀 더 객관화시키려는 노력이 후속 연구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1] 한효정, "유아교육기관 재원 4, 5세 유아의 놀이성과 자기 조절력의 관계", 덕성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유아교육과정 유아교육전공 학위논문, 2024년
- [2] 김미숙, "교사가 지각한 5세 유아의 놀이성에 관한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유아교육전공 학위논문, 2001년
- [3] 2019 개정 누리과정(해설서), pp.13
- [4] 박정연, 이성희, "부모의 양육태도와 유아의 놀이성과의 관계", Montessori교육연구논문지, 제 14집 1호, pp.40-57, 2009년
- [5] 서정아, "아버지의 양육태도와 유아의 놀이성과의 관계에 대한 연구", 경기대학교 교육대학원 유아교육전공 학위논문, 2006년